

특수교육 융합 기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 및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

김영준¹, 강경숙^{2*}

¹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사범교육대학 박사, ²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박사

An Operating Plans for the Interconnection between Local Agencies and Promotion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on the Special Education Convergence Based on 「Department of Support for the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Graduate school」

Young-Jun Kim¹, Kyung-Sook Kang^{2*}

¹Ph.D., College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²Ph.D., Departmen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특수교육 융합 기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와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 탐색과 전문가 회의를 상호 병행한 연구 방법을 구성하였다. 먼저, 특수교육 융합 기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에서는 조직적 범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와 교육과정적 범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상호 연계적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융합 기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에서는 교과교육 중점형 운영방안과 협업지원 중점형 운영방안이 상호 연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현실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결론짓는 관점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특수교육 융합의 리더십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특수교육, 융합,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 전문인력 양성,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 평생교육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exploring methods of foster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of the 「department of support for the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graduate school」 based on the convergence of special education and connection between local relevant institutions. To this end, research methods were constructed that combine literature exploration and expert meetings. First, the system for fostering professionals in the 「department of support for the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graduate school」 based on the convergen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was presented interlinked with the system for foster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 the organizational and academic categories. Next, the link operation plans between relevant local institutions under the 「department of support for the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graduate school」 based on the convergen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were presented interlinked with core management measures for curriculum education and cooperative support. In order to conclude the pre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above research results, we presented leadership of special education convergence on the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Convergence, Department of Support for the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Graduate School, Foster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terconnection between Local Agencies, Operating Plans, Life Long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k Kang (grace86@wku.ac.kr)

Received December 31, 2018

Revised February 1,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특수교육 분야는 학령기 장애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구체적인 이론과 현장의 실재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학령기 장애학생이 성인기로 전환할 시 특수교육의 성과를 통해 취업 연계나 실질적 사회통합 및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결과에 의해 성인기의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1]. 특별히, 성인기 장애인 중 기본적인 자립과 직업생활을 통한 성인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상기해 볼 때 특수교육 분야가 학령기 뿐 아니라 성인기 대상의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제로 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2]. 특수교육의 운영체제가 유·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구축된다고 하여 학령기의 범주에만 한정되는 측면은 특수교육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발달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며, 특수교육 분야 자체적으로 현 시대의 실천적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까지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3]. 이에,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자립생활과 직업생활 적응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 분야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성인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체제와 그 적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성인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1,3-4]. 단적인 예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체제가 미흡하여 특정 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두거나 다양한 교육기관의 활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할 전문인력의 대상과 자격, 양성체제가 미흡한 데에서 기인된다 [5]. 현행의 특수교사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수교사의 경우 본래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을 지도하는 데 자격적인 역할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로서 진출하는 전문기관이 학령기 중심의 특수학교(급)가 대부분이므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제와 상호간 정합되기 어려운 측면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4][6]. 또한, 학령기와 성인기에서 공통적으로 교육 지원체제라 할지라도 교육적 대상들

중심으로 발달장애학생과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제반 교육 내용 및 방법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자체가 특수교육의 자격 범주에 속하는 특수교사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3,7]. 현 상황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가 학령기 특수교육과 상호 연계·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교육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는 융합(convergence)되어야 한다[3-5,8]. 하지만,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는 학령기 발달장애학생과 같은 특수교육의 범주 자체라기보다는 특수교육과 융합된 평생교육의 범주에 보다 밀접하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7,9]. 종합하면,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 역시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학령기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education)’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상호간의 맥락이 다소 변별적이라 할지라도 상호간 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제기된다고 하겠다[2,4,8,10].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맥락의 교육 지원체제는 학령기 발달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사후관리(post management)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미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현행의 특수교육 전문성 자체로 다루어지는 데 한계가 많으며, 현실적으로 현행의 특수교사 대상의 다년(多年) 간 체계적인 연수 과정이나 새로운 자격 취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10]. 따라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평생교육의 맥락으로 구축해야 할 교육 지원체제를 특수교육과 융합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반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2017년 5월 30일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상으로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은 전문인력을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입장이나 학령기 특수교육과 융합되어야 할 가능성 측면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제가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의 맥락이라 하여 현행의 평생교육사를 전문인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8]. 이런 단편적인 규정으로 인해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가 표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적용방안은 법률상을 비롯해 학계 및 현장에서 역시 뚜렷하게 모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분야 역시 실천적 맥락 및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관점에서 정립되기보다는 특수교육을 비롯해 사회복지, 직업재활(재활상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11]. 종합하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결과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가 평생교육의 맥락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표면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상의 일환이라고도 역시 볼 수 있다[4-8,10]. 덧붙여,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현재 성인기 뿐 아니라 학령기를 포함한 전 생애 주기(life-span cycle)의 차원에서 특수교육과 평생교육이 상호간 융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크게 이해하지 못한 일환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측면을 종합하여 다음으로 중요하게 주의해볼 부분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제를 위한 교육기관의 다양화가 양·질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5,9,11]. 현재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등으로 구축되어 있는 실정인 하나, 기관 간의 협업이 수월치 못한 일례가 많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 간의 전문성과 업무 중복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3,10].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 기관들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하는데 역시 조직적으로나 교육과정적인 기반에서 미흡한 한계점을 가진다[7]. 이는 곧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교육기관을 구축하지 못한 한계로 볼 수 있으며, 보다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전문인력(예: 특수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자격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융합된 연수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가운데 충분히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4][12-13]. 이런 제한점으로 인해 현 상황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의 심화·발전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결과적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표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성인생활 장면과 연관된 성과(예: 취업, 자립 등)를 보장 및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미흡하다고 하겠다[13]. 따라서 앞서 고찰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관점과 연계하여 교육기관의 활용과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어느 특정한 기관의 활용성과 체계가 아무리 활발히 구축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유관기관 간의 협업에 의한 융합 구성체계 역시 중요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범주로 접근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별히, 학령기 특수교육과 같이 공식화된 교육기관(예: 특수학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유관기관 간 협업은 일련의 조직적 체계 가운데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5,9,11,12].

이상에서 고찰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제를 위한 전문인력과 협업 기반의 교육기관에 대한 활용 및 체계가 단기·지엽적인 접근으로써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대학(university)이란 기관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13,14]. 대학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제와 관련된 전문이론 및 실체를 학과 조직(예: 특수교육과 등) 및 관련된 부서(예: 특수교육연구소, 평생교육원 등)를 R&D의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수요원 등의 전문가가 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을 기획 및 총괄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고찰한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양·질적 활성화를 도모하기에 적합하다[2,5,7-10,15]. 표면적으로 인식해 볼 때 대학 기관은 특수교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수용될 수 있으나, 각종 조직적인 인프라가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융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전문인력 양성 뿐 아니라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14,15]. 단적인 예로,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산하에 지역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직업생활 성취를 목적으로 설치한 K-PACE센터 역시 그 일환이라고 하겠다. 대학은 타 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등)과 달리 전문적인 이론 내용과 현장성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유관기관 전문가의 역량 개발을 원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과정 및 프로그램(education & training course and program)을 다양하게 기획·실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뿐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역시 원스톱(one-stop)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15,16]. 특히나, 대학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 체계가 특수교육과 융합하여 평생교육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는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한 이후 전문인력 및 유관 기관 간 연계를 모색할 수 있는 체계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이점이 제고되며,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예: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실제적인 평생교육 수요와 성과에 맞추어 기능과 역할을 재구조화시킬 수 있는 동기적인 단서를 제공한다[17].

이상에서 고찰한 몇 가지 근거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계가 평생교육의 맥락으로 구축되는 가운데 같은 실천적 성격과 맥락을 가진 특수교육과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 일환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제에서 기본적인면서 포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전문인력 양성’ 부분과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부분을 특수교육과 융합된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제를 특수교육과 융합된 평생교육의 범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립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일환에서 ‘대학’이란 교육기관이 적극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특수교육 융합 기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 및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학이 단편적으로 일반 평생교육학의 한 가지 영역으로서만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예: 발달장애 등)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특수교육과 융합되어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특수교육과 융합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구실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관점에서 특수교육의 재구조화(restructure of special education)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연구 목적에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는 앞서 고찰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제를 위한 대학의 기능과 역할적인 일환으로 구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 목적의 취지에서 맞추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의 연구 내용은 특수교육 융합 기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이며, 두 번째의 연구 내용은 특수교육 융합 기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이다. 이 두 가지의 연구 내용은 상호간 연계적인 관점에서 탐색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연구 주제 및 내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문헌을 선정·활용한 문헌 고찰이다. 본 연구는 관련된 선행 연구문헌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할 시 가장 먼저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를 수집한 후 수집 자료 중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를 「특수교육 융합 기반의 평생교육 맥락」으로 다룬 일부 자료를 변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단,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정된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선정된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즉, 본 연구의 주제 및 내용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 볼 경우 현존하는 국내외의 선행 연구문헌들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이로 인해 일련의 객관적인 분석 변인에 의해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데 많은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정된 자료들이 제시하는 맥락이나 관점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런 연구 동향으로 인해, 본 연구는 연구의 주제 및 내용에 대한 구체화를 보완하고자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는 일반적인 면담으로써 실시되지 않고 각 전문가별로 상호간 협업을 통해 토의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전문가들은 토의를 통하여 연구 내용에 대한 일련의 도식을 합의의 절차로 완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본 연구는 이렇게 완성된 도식을 연구 결과에 반영한 후 관련 해석 내용을 역시 연구 결과에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문가 회의에 참여한 각 전문가들은 교수요원 15명(특수교육과 소속, 발달장애전공)이었다. 참고로, 본 연구가 각 전문가의 상세한 기초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전문가들이 가진 전문 배경이 상호 유사할 뿐 아니라 관심 학문 분야와 교직 경력(예: 10년 이상) 역시 유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정보 제시가 요구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2. 본론

2.1 특수교육 융합 기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

다음에서는 특수교육 융합 기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조직적 범주’와 ‘교육과정적 범주’와 같이 두 가지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특수교육과 융합된 전문인력을 어떤 구조와 절차로 양성할 수 있는가의 실제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1.1 조직적 범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

특수교육의 융합에 기반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와 관련된 조직적 범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자격 대상이다[3]. 자격 대상이라 함은 현행의 특수교사(직업특수교사 포함)를 의미한다.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가 특수교육 융합체제를 구축한다는 부분은 학과 차원에서 다루는 학문적 분야와 배경을 ‘교육(education)’의 입장에서 제고하는 측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5].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교육과정의 기반으로 구축 가능한 분야는 교육 뿐 아니라 복지(예: 사회복지, 재활상담 등) 분야에 이르기까지 융합적인 관점을 포함하지만, 교육 분야의 관점은 중추적인 위상과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7,8].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 기반을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 분야의 관점에 있어 학령기 기반의 특수교육과 융합될 경우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성인계속교육(adult continuing education)의 지원체제를 반영해야 한다[10]. 또한, 이런 교육 분야는 사회복지, 재활상담 등의 복지 분야와 달리 발달장애인이 전체 성인기 생애 동안에 상호 융합된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성과관리가 되어야 하며, 이런 성과관리의 결과에 따라 복지 분야(예: 재활상담 등)의 활용방안을 발달장애인의 개별에 맞추어 계획할 수 있도록 주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기능적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대학의 차원이라 할 수 있는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교육과정 기반의 이론 및 실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체제에 있어서 학령기 기반의 특수교육 융합 부분은

조직적 범주에서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근거로 하여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양성해야 할 전문인력의 대상으로 특수교사의 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다. 단,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의 관점에 기반을 둘 경우 특수교육과의 융합 부분 뿐 아니라 평생교육과의 융합 부분 역시 고려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 학계 및 현장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빚어질 수 있겠다[3,7,12]. 하지만, 평생교육 분야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세부 교육 영역으로 구축 가능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특수교육과 같이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데 제한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1,6]. 이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일반 평생교육의 관점을 비롯한 실천적 흐름과 상호 융합적일지라도 일반 평생교육과의 변별성을 구축해야 할 대상 요소는 ‘장애의 특수성(particularity of disabilities)’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14,17].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장애의 특수성을 중요하게 반영한다는 측면은 특수교육을 연장하여 활용한다는 잘못된 이해이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특수교육과 융합되는 부분은 특수교육의 성과 사례를 기초 자료와 사전 배경으로 참조·활용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기반이 학령기 특수교육 교육 내용과 상호 융합될지라도 평생교육과정의 기반 자체에서 상호 변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교육 내용과 구성체계는 전제되어야 한다[5,12]. 이러한 측면을 좀 더 확장하여 이해해 본다면,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간의 관계성 정립은 기초 차원과 심화·발전 차원과 같이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16], 두 가지 형태의 차원에 의해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기반은 보다 높은 전문성과 변별성을 구축할 수 있다. 덧붙여, 장애의 특수성을 담보하는 특수교육과 융합하여 구축된 평생교육은 교육 관점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고려되어야 할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심화 수준을 담보하는 주된 기반으로써 가치를 제고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제반 가치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대학 특수교육과」 출신자나 현장 진출 특수교사를 성인기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인력(예: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 ‘장애인 평

생교육 코디네이터(가칭) 등의 양성 및 자격 대상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역으로, 현행의 평생교육사가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 범주로 설정되는 부분은 적합성이 미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몇몇 대학의 학부과정이나 대학원(예: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에 평생교육전공이 공식적인 학과 조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 기반에서처럼 장애의 특수성과 교육활동(예: 교과교육 등) 간의 정합성 측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으로 직결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13,16,17]. 이에,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 대상으로서 특수교육과 관련자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아울러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대학 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연계 포함)의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상자(예: 학부 졸업자, 학부 졸업 후 현직교사 등)를 선발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조직적 범주의 적용 방안을 구체화시켜야 하겠다.

이와 같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대학의 학부과정인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대상자를 입학 대상으로 고려할 경우 학부과정 기반의 특수교육과의 기초-심화의 조직적 체계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제 담보할 수 있으며, 학령기의 발달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점과 상호 변별적인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관점에 의해 교육과정 기반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1,5,7,11,14]. 또한, 조직적 범주의 차원에서 학부과정의 특수교육과에 소속한 예비 특수교사가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수반해야 할 교육과정 이수 절차에 대한 부담감이나 제한점(예: 특수교육과 전공 교육과정 이수 시간과의 양적인 중복 현상 등)을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를 매개로 최소화할 수 있다[16].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수교사의 양성 자격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자격을 상호 융합(convergence)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절차와 교육과정적 이수 방안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3,9,12-15]. 덧붙여,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에 중점을 두는 만큼 특

수교사의 자격 뿐 아니라 현행 평생교육사 자격과 융합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2,7,13]. 이와 관련된 방안은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 자체적인 제도와 노력에 의해서 뿐 아니라 양성 대상이 특수교육과 학부 과정을 비롯하여 대학원 내 계절학기 학사운영제도 등을 통해 현행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직적 대처가 수반될 때 현실적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자격 뿐 아니라 인접한 관련 자격(예: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등)을 상호 융합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적인 이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2.1.2 교육과정적 범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특수교육 융합 기반에 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조직적 범주와 더불어 교육과정적 범주 역시 동등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융합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예: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자격 양성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적 기반이 '교육'의 실천적 맥락과 성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3,1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학령기 특수교육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담당한다고 하여 교육과 복지 간의 타당한 분류 기준 없이 자격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타당성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양성에 대해 담보되지 못한다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특수교육 융합 기반의 관점과 맥락에 의해 자격 양성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특수교육의 범주에서 뿐 아니라 관련 분야(예: 직업재활-재활상담, 사회복지 등)와의 전문성이 중복되는 한계적 상황 역시 초래되기 때문이다 [1,4,12]. 따라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특수교육 융합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적 기반을 '교육'의 실천적 맥락과 성격에 의해 구체화할 수 있는 적용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융합에 기반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적 기반은 특수교육과 융합을 이루는 만큼 학령기 특수교육과정의 교과교육(subject matter education)과 연계된 관점에서 실제로 개발되어

야 한다[3]. 학령기 특수교육과정의 교과교육은 국어, 수학, 사회, 실과, 직업 등의 세부 교과목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교과별 지식과 기술은 학령기의 발달장애 학생을 학습 대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립생활에 기초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5,7,11,14]. 그리고 학령기 특수교육과정의 교과교육은 ‘교육’의 실천적 맥락과 성격에 직접적으로 부합할 뿐 아니라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현행의 평생교육과정에 구축된 교과교육과 통합하여 구체화된 학습과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15]. 현행의 평생교육과정에 구축된 교과교육은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학령기 특수교육과정의 교과교육(예: 국어, 수학, 미술, 사회, 실과, 직업 등)과 상호 밀접한 기능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학령기 특수교육과정의 종합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월성이 제고된다[6,7]. 따라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현행의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교과교육 영역(예: 기초문해교육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교육 등)별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며, 각 교과교육 영역별로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할 역량(예: 교수·학습능력, 교육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교과목 역시 편성해야 한다. 특별히,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현행의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교과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기반을 마련할 시 현행의 평생교육사에 대한 자격 양성과정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실효적이라 할 수 있다[4,9]. 이런 관점에 따르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현행의 평생교육사 자격 양성과 연계하여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일반 비장애 성인과 다르게 학습 차원에서 특수하게 보장받아야 할 ‘장애(disability)’의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 기반을 변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과의 융합 기반에 의해 교육과정적 적용방안을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특수교육 교과교육의 맥락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성인기 평생교육의 맥락에 따라 특수교육의 융합 기반을 심화·응용하는 가능성 역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현행 평생교육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적 기반을 마련할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교과과정의 영역(예: 기초

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자격 양성 대상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4][7-9]. 학령기 발달장애학생에 중점을 둔 특수교사의 자격이 교과별 구분 표시(예: ‘특수(국어)’ 등)로 구축된 것처럼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자격 표시 방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2]. 이런 관점을 구체화시켜 본다면, 대학 특수교육과의 출신자로서 어떤 교과 표시의 자격을 취득해 왔는가의 여부에 따라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과정 영역(예: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준과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적용방안을 상기해 볼 수 있다[5,12,14]. 단, 특수교사 자격 취득에 의한 교과 표시 자체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교육과정을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 대상을 표면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순 있으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한 양성 대상이 진출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현장의 인력 수요와 일관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과 표시의 자격적 방안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 덧붙여,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자격에 교과 표시가 이루어질 경우 특수교사의 자격과는 통합화하는 데 상호 유기적인 융합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행의 평생교육사의 양성 자격과 융합되는 데 다소 거리감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주의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학령기 특수교육과 상호 융합된 기반 하에 평생교육에 대해 주요하게 갖는 수요는 직업능력개발교육을 기점으로 한 전반적인 자립생활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과정의 영역(예: 기초문해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이 직업능력개발교육의 교과과정 영역과 동등하게 다루어지는 데 한계적일 수 있다[3,14,16]. 이상에서 진술한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현행의 평생교육과정 영역(예: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을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교육과정에 반영함에 있어 융합적인 맥락 및 지식과 기술(예: 직업능력개발교육+기초문해교육 등)을 반영하여 교과목을 개설 및 편성하는 운영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개발함에 있어 특수교육 융합의 기반을 유지한다고 하여 상호 동등하게 ‘교육’의 실천적 맥락과 성격을 갖는

평생교육적인 내용체제(예: 장애인 기초문해교육 교과과정, 장애인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과정 등)만을 반영할 순 없다[2][12-15].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교육 기반의 전문 수행역량에 중점을 둔다고 할지라도 특수교사의 자격 취득 출신자로서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예: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으로 진출할 시 관련 전문가(예: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와 상호 협업해야 할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13]. 이에,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교육과정의 기반 안에 장애인재활상담(직업재활) 등의 이론적 실재와 관련된 교과목을 일부 편성·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1,7-10,12-15]. 이러한 교과목은 특수교사의 자격 취득 출신자가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 직접 수행하는 전문역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당 전문가와 협업할 시 참조해야 할 전문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교육과정 기반에 있어 이차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과의 융합에 기반을 둔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장애인재활상담 등의 관련 분야에 기반을 둔 교과목을 양·질적으로 다양하게 편성할 순 있으나, 보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교육의 실천적 맥락과 성격에 기반을 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과과정(예: 직업능력개발교육, 기초문해교육 등)을 적용하는 과정이나 사후에 활용하는 성과 사례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연계·융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해당 교과목이 내용 기반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4-8,13,15-16]. 결과적으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구축해야 할 교육과정 기반은 특수교육의 융합과 평생교육 맥락(예: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과정 등) 뿐 아니라 장애인 재활상담 등의 인접 분야까지 상호 고려한 융합적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5]. 덧붙여,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특수교육 융합에 의해 교육과정의 주요한 기반을 교육적인 맥락으로 구축하는 가운데 인접 분야(예: 장애인재활상담 등)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는 부분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현행의 전문 자격 소지자(예: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와의 전문성 중복을 둘러싼 이해관계상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도 제고된다고 볼 수 있다[6].

2.2 특수교육 융합 기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

앞서 살펴본 특수교육 융합 기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예: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을 양성하기 위한 조직 범주와 교육과정 범주가 현실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학의 원스톱 체제(one-stop system)를 중심으로 한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 자체적으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란 조직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지라도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이 상호 동등하게 마련되지 못한다면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현실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3,7]. 따라서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축 실행 가능한 조직 및 교육과정 기반을 통하여 체계화된 유형의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 조직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을 전개하는 부분은 양성 전문인력의 자격적 진출 뿐 아니라 대학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타 유관기관과 더불어 주도한다는 위상과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주된 기반이 된다[13]. 이런 측면에서, 대학은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자격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의 유관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갖는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때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실효성을 크게 담보할 수 있다. 다음에선 대학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조직을 통해 각 유형별로 운영 가능한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방안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특별히, 다음에서 살펴보는 유형은 대학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조직을 통하여 특수교육 융합 기반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입장 또한 명확히 확인시켜 줄 수 있다.

2.2.1 교과교육 중점형 운영방안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특수교육 융합 기반에 의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행의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적 맥락을 반영한 교과교육이다[7,11]. 이에,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교육과정 기반으로 구축한 각종 교과과정 영역(예: 기초문해교육 교과과정,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과정 등)을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교육과정의 기반과 관련된 내용체제를 자격 양성 대상에게만 전달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기반을 통해 실제로 학습과정을 전개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4][12-13]. 이는 대학별 여건에 따라서 상대적인 가능성을 나타낼 부분이지만,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를 구축하고 있는 대학 내에서 평생교육원 등의 조직부서와 협업하여 지역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사업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4]. 나아가선, 대학 자체적인 범위에서 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 구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각종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의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 교과과정(예: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6,17]. 이런 측면은 현행의 대학 실정을 비롯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관련 여건을 살펴볼 경우 활성화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수반될 수 있으나, 대학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란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예: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 등)의 양성 자격을 활발히 배출해 나가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적용방안에 해당한다[2-15]. 결과적으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자격 부분과 지역의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사업 부분을 병행하여 개발·구축한 교육과정 기반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교육과정 기반으로 구축한 교과교육(예: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은 대학이 지역의 유관기관(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의 관계에 있어 주도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윈스톱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차원으로 연결되며, 최종적으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구축한 교육과정 기반을 지역의 유관기관에 확대하여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진다[5,14,17]. 대학 역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를 주축으로 평생교육원과 상호 협업하여 교육 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가 지역의 유관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일환으로 지역 유관기관의 교육과정을 컨설팅 및 지원하여 주는 역할도

가능하다[8,11]. 지역의 각 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등)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예: 직업훈련, 직업상담, 언어재활 등)와 연계하여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의 기반 내용을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런 교육과정의 기반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하는 절차적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본연의 업무와 상호 조화하는 절충의 방안(예: 특수교육 중심의 교육재활과 성인기 평생교육 교과과정의 내용 융합 등) 역시 고려될 수 있다[2,5,7,12-15]. 이상의 측면은 대학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란 조직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써 뿐 아니라, 중·소단위의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예: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과 더불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주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대학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조직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직접적으로 운영 및 실천하는 부분은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이 성인기 발달장애인 관점에 대해 갖는 제한점을 최소화하는 기반이 된다[5,9,13]. 장애인복지관이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학령기 특수교육 교과교육과정과 융합하여 심화·발전된 내용 기반을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담보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교과과정의 R&D 역량이 미흡할 뿐 아니라, 특수교육과 같은 교육적인 실천 맥락과 성격을 충실하고 타당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8]. 이에, 대학에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조직을 통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교과교육에 중점을 두어 지역 유관기관과 상호 연계 및 협업하는 운영방안은 특수교육의 융합 기반은 물론 특수교육을 성인기 발달장애인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범주(예: 성인계속교육(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로 발전시킬 수 있는 데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학에선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교육과정 기반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될 수 있는 기준점(예: 교과과정의 영역(예: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별 연계, 해당 유관기관의 선정 교육 사업 등)을 다각적인 절차에 의하여 마련할 필

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계 운영방안이 대학과 지역 유관 기관 간에 활성화되기 위하여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교육과정 기반을 대학 자체에서 뿐 아니라 지역 유관기관의 수요 차원에서 점검 보완하는 절차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9].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 대한 동향을 살펴볼 경우 표면적인 수준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경향이 많으며, 그 교육 기회와 내용 기반은 특수교육이나 직업재활(재활상담)과 같은 기존 학문 실천 분야의 전문성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일례가 많다[6,17]. 단적인 예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치·운영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사례를 살펴볼 때 역시 기존의 특수교육 및 직업재활 분야와 전문성이 중복되어 기관 자체의 활용 가치나 타 유관기관(예: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과의 변별성이 전문성 차원에서 크게 담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7].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도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대학의 여러 조직부서(예: 평생교육원 등)와 상호 협업하는 구성체계를 통하여 지역 유관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대학으로 접근하여 평생교육 교과교육과정(예: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며, 대학 자체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교과교육의 역량을 부분적으로 지역 유관기관에서 담당하는 상생적 절차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특수교육 융합 기반에 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자격을 특수교육과 출신자(예: 특수교사 등)로 설정할 수 있는 만큼 현직 특수교사 중심의 과건 절차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지역 유관기관에 부분적으로 진출하여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교과과정(예: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5].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자격 등급(예: 1등급, 2등급, 3등급)을 고려하는 데 있어 지역 유관기관에 진출하여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교과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타당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감안하여 볼 때에도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유관기관 연계를 위해 교육과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당위

성이 요구된다. 후속적으로, 대학에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적용 모델이 특수교육의 융합 기반(예: '대학 특수교육과' 개설 등)에 의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와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를 상호 일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내 교과과정 기반을 실제로 개발해 보는 사례연구 역시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2.2 협업지원 중점형 운영방안

대학에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함에 있어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교과교육에 중점을 둘 수 있지만, 지역 유관기관이 갖는 본연의 전문역량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협업지원 중점형 운영방안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협업지원 중점형 운영방안은 앞서 고찰한 교과교육 중점형 운영방안을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활발히 적용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1,6-7,9-12].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주된 범주에서 보장받아야 할 내용적 기반이 교과교육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과교육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면서 교과교육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과 융합된 성인기 중심의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뿐 아니라 관련 분야(예: 직업재활(재활상담), 사회복지 등)의 전문성 역시 협업화되어야 한다[8-14].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 평생교육 유관기관(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은 실제로 대학에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조직을 통하여 개발한 평생교육 교과교육과정(예: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보다는 기능훈련 및 상담을 비롯하여 각종 복지서비스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일례로, 현행의 직업재활(재활상담) 분야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직업상담, 취업 연계 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교육과정의 기반으로 다루고자 하는 교과교육의 교육적 실천 맥락 및 성격에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5,7,9-13]. 엄밀히 말해서, 직업재활(재활상담) 분야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요구되지만 교과교육의 성과를 위해 상호 연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기초적이고 활용적인 조건으로써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15]. 즉,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교과교육의 내용 기반을 학습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진단 및 상담 받아야 할 조건을 정립시켜 주며, 나아가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교과교육의 내용 기반을 학습한 이후 취업 등과 같은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정립시켜 준다[2]. 이런 측면에서, 특수교육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지역 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담당하는 업무(예: 직업재활(재활상담) 등)를 교육과정 기반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지역 유관기관의 업무를 교육과정 기반의 일환으로 반영하는 절차는 곧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등) 간의 연계와 협업을 실제로 이행하는 절차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3][8][17]. 이에,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중점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유관기관의 업무(예: 직업재활(재활상담) 등)가 상호간 연계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기반 안에 포함되어야 할 교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예: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의 양성과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2]. 즉, 대학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를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절차를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절차(예: 직업적 장애 진단 및 평가(재활상담) → 직업상담(재활상담) → 직업훈련(재활상담) →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과정 적용(평생교육) ... 등)에 의해 다년(多年)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이 대학에 대해 협업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전문기능을 타당하고 명확히 마련할 수 있다[2,5,9,13-15]. 이런 이점은 대학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교과과정(예: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이고 사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협업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로써 가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학이 지역 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적용되는 평생교육 교육과정 기반을 협업하여 수시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1,3,12,15].

또한, 지역 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담당하

는 업무기능을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교육과정 기반에 반영하는 부분은 중점을 두는 교과교육을 총괄·기획하는 특수교육 융합 기반의 평생교육(예: 성인계속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중복되는 제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2,7,13]. 그리고 대학이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조직을 통해 성인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지역 유관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윈스톱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간 협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지역 유관기관이 윈스톱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에 전문성과 관련된 요구를 의뢰할 수 있는 통로 역시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5].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교육과정 기반이 대학에서 총괄·기획되는 만큼 대학 중심의 지원체제가 중요하게 고려되나,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역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대학과 개별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와 전문 업무기능을 변별화할 수 있는 데 주된 가치가 있다[8-13,15].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 간의 연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앞서 대학이 개별 지역 유관기관별로 연계와 협업을 변별화할 경우 이러한 측면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운영과 성과 사례에 주는 기능과 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 간의 연계 절차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11]. 후속적으로, 대학에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를 통하여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협업이 필요한 지역 유관기관 목록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그 지역 유관기관 목록을 개별화하여 대학과 상호 맵핑하여 변별적인 업무기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서, 본 연구가 현재 기초연구의 관점에서 대학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와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에 대한 중요성과 적용방안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있으나, 후속적으로는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기반에 대한 지역 유관기관의 수요와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 사정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종합 사정의 작업을 통하여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가 교육적인 실천 맥락과 성격에서 구축한 교육과정 기반이 지역 유관기관이 현행의 구도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과 관련해 타당하고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전문성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인식 및 수요가 양·질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교육적

실천 맥락과 성격에 기반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평생교육과 지역 유관기관의 담당 분야(예: 재활상담, 사회복지 등) 간의 전문성 혼란과 중복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및 고찰

본 연구가 결과적으로 특수교육 융합 기반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전문인력 양성체제 및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을 모색한 측면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능적 조건을 중심으로 결론 및 고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결론 내용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를 보다 타당하게 지지해 주는 이론적 실재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며,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실제적으로 상호 동등하게 수반되어야 할 절차 및 적용방안으로써 가치를 가진다.

3.1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특수교육 융합의 리더십 정립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및 실천 동향을 살펴볼 경우 관련 학문 분야로서 특수교육 뿐 아니라 직업재활(재활상담), 사회복지, 일반 평생교육(교육학) 등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를 표면적으로 볼 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주의해 볼 수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반 평생교육의 분야와 더불어 학문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정체성, 실천적 맥락 및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신중하고 타당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각 분야(예: 특수교육, 재활상담(직업재활), 사회복지 등)별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각 분야별로 상호간의 전문성과 업무가 중복될 소지가 많으며, 이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전문 자격을 소지한 대상(예: 특수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떤 역량 기준 아래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역시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발생한다[7]. 이를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발달장애인 등을 비롯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학문·실천적 위상 및 정체성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용어의 표면에

서 드러나듯이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의 개정 「평생교육법」 안에 법적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 기반을 두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5,11-13]. 특별히,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가 일회적인 기간 안에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으로써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 생애 중심으로 장기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성과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의 입장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2,4,15]. 그리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가 ‘교육’의 관점과 성격에 주된 기반을 두는 입장일 지라도 일반 평생교육과 달리 ‘장애의 특수성’을 주된 실천 근거로 삼아야 하는 만큼 교육의 분야교육(field education)이라 할 수 있는 ‘특수교육’의 융합 기반은 더욱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놓고,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가 특수교육과 융합 기반을 이루되 특수교육의 재구조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즉, 학령기를 기반으로 하는 특수교육의 교과교육과정(예: 국어, 수학, 사회, 실과, 직업 등)을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그대로 반복하여 적용하는 패턴보다는 이러한 지식체계를 연계 및 확장하여 현행의 평생교육과정(예: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대한 내용 기반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특수교육 융합의 리더십을 정립하였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교육’과 ‘장애의 특수성’에 주요 기반을 두어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동향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특수교육 융합의 리더십이 강조되지만, 후속적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특수교육 간 정합성에 대한 근거가 다각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가장 먼저 학령기 특수교육과정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삶과 교육 수요 관점에서 갖는 제한점과 개선방안이 활발히 마련되는 연구가 전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령기 특수교육과정을 응용 및 발전, 융합하는 차원에서 학령기 특수교육과정에 구성된 여러 내용요소들을 현행의 평생교육과정(예: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구성된 내용요소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통합 구성체계 양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 활발하게 기여해야 할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예: 대학,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

인복지관 등)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의 성인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천 동향에 의하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이 고려되지만 각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체제는 거의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다 [1-3,17]. 특수교육이 공식적으로 학령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체계라고 할지라도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점과 융합될 경우 특수교육 자체적으로도 많은 재구조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수교육 분야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직업특수교육을 위해 현행의 구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공과 과정 역시 평생교육기관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될 수 있으며, 전공과의 현행 교육과정(예: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교육과정의 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시 아주 큰 이점이 될 수 있다[6].

이상에서 전술한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특수교육 융합의 리더십이 학문적인 수준에서 출발하여 일차적인 활성화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학문적인 토대에서 마련된 각종 적용방안이 현장의 수요와 함께 보급 및 확장될 수 있는 통로가 국가적인 정책 차원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국가적인 제도 차원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연구 및 실천을 위해 설치·운영한 기관이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융합의 리더십은 거듭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18].

3.2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 촉구를 위한 「대학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의 역할 기능 재구조화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 촉구를 위해 대학에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조직을 개설하여야 할 필요성과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주안점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의 역할 기능이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대개, 「대학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의 역할 기능은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기반을 실천하는 데 많은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지역 연계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직접적으로

로 실천하는 역할 기능 역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2,4-11]. 본 연구에서 다룬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조직은 「대학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에서 새롭게 신설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행에 유지하고 있는 학부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예: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및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의 협동과정과 연계하여 조직적 기능을 융합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대학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과 관련하여 현행에 구축해야 할 혁신적 동향을 반영하는 일환이 되며, 특수교사 양성 중심의 자격 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학과의 진로교육 방안 역시 혁신하는 일환이 된다[3].

이렇게 「대학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에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조직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의 교육과정 기반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 간에 상호 정합성 여부와 기준을 종합 사정하고, 그 사정 결과에 의해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이 특수교육 융합 기반에 의하여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의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의 조직적인 총괄·기획이 전체되어야 하며,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 간의 통합(예: 학-석사 통합과정 등)이 고려될 때 본 연구가 결과적으로 고찰한 전문인력 양성 자격 현실화와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 후속적으로, 「대학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를 개설하고 있는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원 발달장애인지원학과」와 같은 형태의 조직이 융합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적용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적용 모델을 통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과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 방안 역시 상호 일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후속 작업을 통해, 앞서 논한 특수교육 융합의 리더십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반영되어야 할 근거와 학문적 정체성 및 위상이 타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Y. J. Kim. (2018a). A Curriculum to Improve the Cooperation Course of 「Fostering Lifelong Educators

- for Disabled」 in the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of University. *The Journal of Vocation and Qualification*, 7(1), 187-213.
- [2] Y. J. Kim & Y. S. Jung. (2018). A Study on the Practical Integration Model of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Lifelong Education : Directions to Foster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2(2), 87-111.
- [3] Y. J. Kim & J. Y. Kim. (2018a). Plan for an Integration System based o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to Foster Cooking Startup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2(1), 23-58.
- [4] Y. J. Kim. (2017a). Training of Lifelong Education Industrial Workers Among Parents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Competen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Vocation and Qualification*, 6(2), 79-111.
- [5] Y. J. Kim. (2017b). Establishment Plan on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Center Organization and Curriculum System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Disabled.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13(3), 87-123.
- [6] Y. J. Kim. (2015). A Study on Applications of School Age Evidence-based Transition Education Practices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from Perspectives of Lifelong Learning.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8(1), 137-166.
- [7] Y. J. Kim & M. A. Do. (2017). Development of a University-base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1(4), 61-100.
- [8] Y. J. Kim. (2017c). The Effects of Independence Life Training through Collaboration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at University in Majoring Course on the Wash Staff Employment Task Skills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0(3), 67-90.
- [9] Y. J. Kim & J. H. Jang. (2017). The Effects of In-Basket based Connection Learning in Lifelong Education Center at University through Workplace Instruction of Employer on Cooking Skills for Work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0(4), 121-141.
- [10] Y. J. Kim. (2017d). Operation Plan of Worksite-affiliated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7(2), 173-198.
- [11] Y. J. Kim. (2006). An Analysis of National Lifelong Learning Policy : Focus on the Annual Plan for 2006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2(1), 145-168.
- [12] Y. J. Kim & M. A. Do. (2014a). A Discussion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Task on the School Age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Independent Living in Future Adulthoo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3(3), 39-68.
- [13] Y. J. Kim & M. A. Do. (2014b). A Study on the Integrated Instruction Approach of Task Skills and Self-Management Skills in terms of Vocational Education for Adulthood Transition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0(3), 291-330.
- [14] J. Y. Kim. (2016). A Study on Composition of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1), 65-92.
- [15] D. S. Kang & J. S. Shin. (2015). A Basic Study on the Career-Based Lifelong Education Model for the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1), 1-22.
- [16] G. H. Choi. (2014). The Implementation of Rehabilitation Counselor Certification and Tasks for Development of Code of Professional Ethics. *Th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4(3), 105-127.
- [17] Y. J. Kim. (2017e). Reality Factors and Improvement Plans to Foster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The Journal of Rehabilitation Science Research*, 35(2), 1-14.
- [18] Y. J. Kim & J. Y. Kim. (2018b). A study on the Evidence-based Practices for Lifelong Education (Vo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 351-359.

김 영 준(Kim, Young Jun)

[정회원]



- 2003년 2월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특수교육학사)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문학석사)
- 2016년 8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사범교육대학 박사

• 관심분야 : 직업재활, 특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 E-Mail : kcons@kcons.or.kr

강 경 숙(Kang, Kyung Sook)

[정회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문학사)
- 199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7년 4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박사

- 관심분야 : 통합교육, 융복합교육
- E-Mail : grace86@wku.ac.kr